



(19) 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11) 공개번호 10-2011-0118201  
(43) 공개일자 2011년10월31일

(51) Int. Cl.

A61K 8/97 (2006.01) A61Q 19/02 (2006.01)  
A61Q 19/00 (2006.01)

(21) 출원번호 10-2010-0037659

(22) 출원일자 2010년04월23일  
심사청구일자 없음

(71) 출원인

(주)고선지커뮤니케이션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448-16 샘탑빌딩5층 507

(72) 발명자

박명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906-42

전체 청구항 수 : 총 5 항

**(54) 피부 미백용 화장품 조성물**

**(57) 요약**

본 발명은 멜라닌(Melanin) 생성을 저해하며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활성 또한 우수하고, 특히 세포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피부 미백용 화장품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본 발명의 피부 미백용 화장품 조성물은 대추(Zizyphus jujube fruit Extract) 추출물, 율피(Castanea sativa(chestnet)bark Extract) 추출물 및 하수오(Pleuropterus multiflorus) 추출물을 포함하고,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및 하수오 추출물은 총 중량에 대하여 각각 0.005~50 중량% 함유한다. 본 발명의 피부 미백용 조성물은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하수오 추출물 등으로 인하여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며 티로시나아제 활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활성 또한 우수하고, 특히 세포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대추(Zizyphus jujube fruit Extract) 추출물, 율피(Castanea sativa(chestnet)bark Extract) 추출물 및 하수오(Pleuropterus multiflorus) 추출물을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및 하수오 추출물은 총 중량에 대하여 각각 0.005~50 중량% 함유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3**

제1항에 있어서,

상기 대추 추출물과 하수오 추출물은 물, 탄소수 1 내지 4의 저급 알콜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로부터 선택된 극성용매를 첨가하여 열수 추출한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4**

제1항 내지 제3항 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조성물은 로션, 밀크로션, 모이스처 로션, 영양로션, 마사지크림, 영양크림, 모이스처 크림, 핸드크림, 에센스, 영양에센스, 팩, 비누, 샴푸, 린스, 컨디셔너,스킨로션, 스킨 소프너, 스킨토너, 아스트린젠트, 클렌징폼, 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 바디로션, 바디클렌저, 유액, 프레스파우더, 루스파우더, 아이새도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제형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청구항 5**

대추, 율피 및 하수오를 각각 채취하는 단계;

상기 채취한 대추, 율피 및 하수오를 프로필렌글리콜에 침지시키는 단계;

수욕조에서 온탕하여 추출액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키는 단계;

상기 냉각된 추출액을 여과하여 여과액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여과액에서 용매를 증발시켜 농축하는 단계

를 포함하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 제조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으로, 특히 멜라닌(Melanin) 생성을 저해하고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며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특히 세포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피부 미백용 화장료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0002] 인체의 피부는 우리 몸의 가장 바깥에 있으면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아들이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최초의 창

구이다. 피부는 외부 환경과 직접 접하면서 인체를 보호하며 생화학적이고 물리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조직이다.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조직의 3개 층으로 구분된다.

- [0003] 멜라닌(Melanin)은 피부의 표피층에 존재하는 색소로서,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노사이트(melanocyte)로부터 만들어져 케라티노사이트(keratinocyte)라는 표피 세포로 이동한다. 생체 내에는 멜라닌을 분해하는 효소가 없고 다만 케라티노사이트가 표피에서 떨어져나갈 때 같이 피부에서 떨어져나가는 것으로 제거된다.
- [0004] 멜라닌 합성 과정을 살펴보면 멜라노사이트 내의 멜라노솜이라는 소포체에서 먼저 티로시나아제(Tyrosinase)라는 효소에 의해 티로신이 도파(DOPA)를 거쳐 도파퀴논(DOPA quinone)으로 전환되고, 도파퀴논으로부터 자동 산화반응과 효소 반응으로 도파크롬(DOPochrome)을 거쳐 흑갈색의 공중합체인 멜라닌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멜라닌은 멜라노솜을 통해 케라티노사이트로 옮겨지고 여기에서 약 28일간의 각화 과정을 거치면서 피부 표면으로 나와 각질과 함께 소실된다. 멜라닌은 햇빛 UV의 빛 에너지를 흡수하여 UV에 의한 손상으로부터 진피 이하의 피부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며, 피부 생체 내에 생겨난 유해산소 및 프리라디칼 등을 잡아주는 등 외부 유해인자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는 유용한 역할을 수행한다.
- [0005] 또한, 피부 세포 내의 멜라닌 양에 따라 사람의 피부색을 결정한다. 멜라닌 색소가 많은 사람은 갈색 또는 검은색 피부를 갖는 반면, 멜라닌 색소가 적은 사람은 흰색의 피부를 갖게 된다. 그러나, 멜라닌이 비정상적으로 적게 생산되면 백반증과 같은 피부병변이 유발되고, 반대로 일광, 호르몬변화, 염증, 약제 등에 의해 멜라닌이 과도하게 합성되거나 각화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멜라닌이 완전히 없어 지지 않으면 피부에 손상을 줄 뿐만 아니라 피부의 색소가 침착 되어 기미, 주근깨를 형성하며, 이와 같은 병변으로부터 나아가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 [0006] 따라서, 이러한 색소 침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멜라닌생성 과정의 일부분을 저해하여 멜라닌의 생성을 감소시켜야 한다.
- [0007] 오늘날 동양권의 여성들은 백옥같이 하얗고 깨끗한 피부를 선호하며 이를 미의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피부색소 이상침착의 치료 및 미용욕구 충족을 위한 미백제에 대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 [0008] 현재 피부미용을 위한 미백제의 개발에 있어서 생성된 멜라닌 색소를 환원시켜 탈색하는 방법과 멜라닌 색소를 형성하는 효소인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억제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멜라닌 색소를 환원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토코페롤이나 비타민류 등을 사용한 미백제는 멜라닌 색소의 탈색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티로시나제의 활성을 저해시킴으로써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는 저해제가 주목 받고 있다.
- [0009] 종래의 화장품 분야에서는 미백성분으로서, 예를 들면, 코지산(Kojic acid), 알부틴(Arbutin) 등과 같은 티로시나제 효소활성을 억제하는 물질, 하이드로퀴논(Hydroquinone), 비타민-C(L-Ascorbic acid) 및 이들의 유도체와 각종 식물 추출물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처방계 중에서의 안정성이 나빠 분해되어 착색되거나, 이취의 발생, 생체 레벨에서의 효능, 효과의 불분명 및 안전성 문제 등으로 그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 [0010] 코지산은 티로시나제의 활성부위에 존재하는 구리이온을 흡착시켜 효소활성을 저해하지만, 화장품에 배합 시 불안정성, 피부 부작용의 문제 및 최근 동물실험 결과 간암유발이 밝혀져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중지되었다.
- [0011] 비타민-C 및 그 유도체는 산화가 잘되는 불안정성 때문에 화장품 원료로서 사용이 어려우며, 하이드로퀴논은 피부에 대한 미백효과는 탁월하지만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질, 멜라닌 생성 세포에 대한 독성, 피부에의 영구 탈색화 등 피부에 대한 자극성이 높으며, 최근발암성 물질로 규정되어 사용이 금지되어 각 나라별로 제한적인 농도만 허가하고 있다.
- [0012] 또한, 알부틴은 하이드로퀴논에 글루코피라노사이드(Glucopyranoside)가 결합된 유도체로 하이드로퀴논 사용 시 나타나는 부작용이 적으면서 인체에 대한 독성은 없이 멜라닌 색소의 합성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멜라닌 색소 침착이 증가되는 피부질환의 치료제로서 이용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피부효소에 의해 일부 분해되는 단점이 있다.
- [0013] 안전성, 변색 가능성 등의 측면에서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유효농도 이상으로 사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으며, 아직 뛰어난 효과를 나타내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발명의 내용**

**해결하려는 과제**

[0014] 본 발명은 멜라닌(Melanin) 생성을 저해하며 티로시나아제(Tyrosinase) 활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활성 또한 우수하고, 특히 세포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피부 미백용 화장품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과제의 해결 수단**

[0015] 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본 발명의 피부 미백용 화장품 조성물은 대추(Zizyphus jujube fruit Extract) 추출물, 율피(Castanea sativa(chestnet)bark Extract) 추출물 및 하수오(Pleuropterus multiflorus) 추출물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및 하수오 추출물은 총 중량에 대하여 각각 0.005~50 중량%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대추 추출물과 하수오 추출물은 물, 탄소수 1 내지 4의 저급 알콜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로부터 선택된 극성용매를 첨가하여 열수 추출한 것을 특징으로 한다. 상기 조성물은 로션, 밀크로션, 모이스처 로션, 영양로션, 마사지크림, 영양크림, 모이스처 크림, 핸드크림, 에센스, 영양 에센스, 팩, 비누, 샴푸, 린스, 컨디셔너, 스킨로션, 스킨 소프너, 스킨토너, 아스트린젠트, 클렌징폼, 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 바디로션, 바디클렌저, 유액, 프레스파우더, 루스파우더, 아이섀도로 구성된 그룹에서 선택된 어느 하나의 제형을 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0016] 그리고, 본 발명의 피부 미백용 화장품 제조 방법은 대추, 율피 및 하수오를 각각 채취하는 단계; 상기 채취한 대추, 율피 및 하수오를 프로필렌글리콜에 침지시키는 단계; 수욕조에서 온탕하여 추출액을 추출하는 단계; 상기 추출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키는 단계; 상기 냉각된 추출액을 여과하여 여과액을 형성하는 단계; 및 상기 여과액에서 용매를 증발시켜 농축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발명의 효과**

[0017] 상술한 본 발명에 따른 피부 미백용 조성물은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하수오 추출물 등으로 인하여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며 티로시나아제 활성을 억제하고, 항산화 활성 또한 우수하고, 특히 세포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8] 이하,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본 발명의 기술적 사상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을 정도로 상세히 설명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가장 바람직한 실시예를 첨부 도면을 참조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0019] 본 발명에서는 대추(Zizyphus jujube fruit Extract)추출물, 율피(Castanea sativa(chestnet)bark Extract)추출물, 하수오(Pleuropterus multiflorus)추출물을 조성물 총 중량에 대하여 각각 0.005~50 중량% 함유하도록 함으로써 대추추출물, 율피추출물, 하수오추출물로 인하여 멜라닌 생성을 저해하고 티로시나아제 활성을 억제하며 우수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며, 세포독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피부 미백용 화장품 조성물을 얻을 수 있다.

[0020] 즉, 중국이 원산이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약용으로 흔히 재배되고 있는 식물인 대추, 율피, 하수오의 생리활성을 연구하던 중,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하수오 추출물에는 항산화 효과가 우수하고 멜라닌 생성을 감소시키며 티로시나아제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피부 미백용 조성물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0021]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대추(Jujube)는 전국적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낙엽관목으로서 가지 끝과 잎 뒷면에 털이 약간 있고 가는 가지는 한군데에서 여러 개가 나오며 일부가 떨어진다. 잎은 호생하고 난형하며 윤채가 있고 예두(銳頭) 또는 둔두(鈍頭)이며 원저(圓低)이고 길이 2~6cm, 너비 1~2.5cm이다. 열매의 표면은 적갈색이며 타원형이고 길이 1.5~2.5cm에 달하며 빨갱게 익으면 단맛이 있다. 과실은 생식할 뿐 아니라 채취한 후 푹 말려 건과(乾果)로서 과자, 요리 및 약용을 쓰인다. 대추는 생활 속에서 가공하여 대추출, 대추차, 대추식초, 대추죽 등으로도 활용한다.

[0022] 주요성분으로는 씨에 베틀린, 베틀린산, 주주보시드 A, B와 에벨린락톤 등이 있으며 또한 기름이 21~33% 들어 있다. 잎에는 루틴, 쿠에르세틴 등의 플라보노이드(3.7%)와 탄닌질(9%), 사포닌 등이 있으며, 뿌리에서도 베틀린, 베틀린산이 알려져 있다. 열매에는 유기산이 많이(1~7%) 함유되어 있다.

[0023] 한방에서는 이뇨, 강장(強壯), 완화제(緩和劑)로 쓰이며, 불면증과 신경과민에 진정효과와 항종양 및 항알레르기 작용이 있다.

[0024] 대추 추출물은 다음과 같이 제조 할 수 있다.

- [0025] 대추를 물로 깨끗이 세척한 후 그늘에서 건조한다. 건조한 대추를 추출용기에 넣고 물 또는 유기용매에 적절한 온도에서 일정 시간 추출한다. 유기용매로는 알코올, 헥산, 에틸아세테이트, 아세톤 및 이들이 혼합물로서 이루어진 균으로부터 선택되며 알코올은 탄소수 1 내지 5의 알코올 또는 이의 30내지 99%의 희석액인 조성물이다. 그리고 물 100 중량 기준으로 건조한 대추를 15 내지 20중량비로 가한 후 100 내지 120℃에서 20분 내지 1시간 자비하고 이를 여과하여 제조할 수도 있다.
- [0026] 울피(Castanea sativa(chestnut)bark Extract)의 원재료명인 밤나무(Chestnut)는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 북부아프리카 등의 온대지역에 자생하여 13종에 달하고, 우리 나라에서 예로부터 재배하여 온 평양밤은 중국이 원산지로서 만주의 남부로부터 화북의 삼성 및 화중 전체에 걸쳐 사천성, 호북성, 운남성 등지에 분포되어 있다. 한편 우리나라의 남부지역에서는 한국 고유의 재래종이 재배되어 왔다. 열매는 바늘로 덮인 공 모양의 밤송이 속에 1~3개씩 들어 있고 익으면 개열한다.
- [0027] 씨(밤)에는 녹말(52~56%), 당분(10~17%), 단백질(9~12%)이 함유되어 있다. 껍질과 잎에는 탄닌질이 9~10%, 잎에는 플라보노이드인 하이페린과 우르솔산, 베틀린, 루페올 등의 트리테르페노이드(Triterpenoid)가 있다.
- [0028] 밤은 기(氣)를 늘리고 대장과 위장을 도우며 신기(腎氣)를 보하며 허리, 다리를 잘 쓰지 못할 때 날것을 씹어 먹고, 또한 배인 곳에 밤을 짓찧어 붙이기도 한다. 근골이 상한데, 종기통, 어혈 등에 생밤을 씹어 바르면 효과가 있으며 신장을 보호하고 허기를 견디게 하며 습진, 두드러기, 농가진, 땀띠 등은 밤 잎을 진하게 달인 물로 하루 서너 번 씻든지, 형겔 등을 적셔서 습포한다. 구토를 하여 입이 아주 마른 경우에 밤 껍질을 끓여 물을 우려내 마시게 하면 아주 좋다고 본초강목(本草綱目)에서 기술하고 있다.
- [0029] 울피 추출물은 다음과 같이 제조 할 수 있다.
- [0030] 울피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다음 건조하여 미세하게 분말화 한다. 분말화한 울피가루 건조중량에 대하여 추출용매로서 물, 저급알콜, 물과 저급알콜의 혼합물, 아세톤, 에틸아세테이트, 디에틸에테르, 벤젠 및 클로로포름을 1~15배 중량을 각각 가하고, 냉각콘덴서가 장치되어 유효성분이 증발하는 것을 방지한 상태에서 50~95℃로 1~20시간 가열하여 추출할 수 있으며, 5~40℃에서 1~15일간 침적시켜 추출할 수도 있다. 이 추출물을 냉각콘덴서가 달린 증류장치를 이용하여 증발되어 나오는 용매를 회수하면서 감압 농축하여 얻어진다.
- [0031] 하수오(Pleuropterus multiflorus)는 중국에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오랫동안 재배되고 있는 덩굴성 약용식물이다. 키는 3~4m에 이르며 뿌리는 옆으로 길게 뻗어 종종 덩이뿌리를 형성한다. 심장형의 잎은 길이가 약 3~6cm, 너비가 2.5~4.5cm 정도로 어긋나며, 잎자루와 턱잎[托葉]이 있지만 가장자리에 톱니가 없다. 꽃은 8~9월에 원추(圓錐)꽃차례를 이루며 핀다. 꽃잎은 없고 꽃받침은 5장이다. 열매는 길이가2.5mm 정도로 세모진 난형이고 윤기가 난다.
- [0032] 붉은빛을 띤 갈색 덩이뿌리를 한방에서 하수오라고 하며 하수오는 신장기능을 튼튼하게 하여 정력을 높이고 머리카락을 검게 하며 병 없이 오래 살게 하는 약초로 이름이 높다. 간장의 기능을 좋게 하여 피곤함을 없애고, 살결을 곱게 하며,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여 신경쇠약이나 불면증 같은 데에도 효과가 있다. 조혈 작용이 뛰어나 빈혈치료에도 좋고 여성의 생리불순, 자궁염, 만성변비 등에도 두루두루 널리 쓰인다. 또 하수오는 노인들의 기력을 돋구는 데 매우 좋은 약이다. 신장기능을 좋게 하여 머리카락이 희어지지 않게 하고 머리카락이 빠지지 않게 하며 오래 먹으면 노화를 예방한다. 중국 사람들은 하수오를 인삼, 구기자와 함께 3대 명약으로 여긴다.
- [0033] 하수오에 많이 함유되어있는 물질인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은 식물에서 발견되는 항산화물질인 폴리페놀(polyphenol) 계열에 속하는 물질로 포도, 오디, 땅콩 등에 들어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특히 적포도주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레스베라트롤은 그 동안 항암,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또한 심장 동맥손상을 줄여주고 심장발작과 뇌졸중을 일으키는 위험한 현상인 혈액응고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 [0034] 하수오 추출물은 다음과 같이 제조할 수 있다.
- [0035] 하수오를 깨끗한 물로 세척한 다음 그늘에서 건조한다. 건조한 하수오를 추출용기에 넣고, 적당량의 추출 용매에 적절한 온도에서 일정 시간 추출한다. 추출물은 여과되고, 진공회전증발기 등을 이용하여 농축될 수도 있다.
- [0036] 추출 용매로는 물, 탄소수 1 내지 4의 저급 알콜 또는 이들의 혼합 용매로부터 선택된 극성용매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에탄올이 더욱 효과적이고, 추출 용매의 양은 생약 건조 중량의 2 ~ 10 배로 한다.

- [0037] 추출 방법은 중탕 추출, 환류냉각 추출, 초음파 추출 등의 추출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중탕 추출의 추출방법으로 1회 내지 5회 추출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이다.
- [0038] 추출 온도는 30 ~ 70℃, 보다 좋게는 40 ~ 60℃, 가장 좋은 것으로는 5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부패, 변색 및 변취의 예방에 효과적이고, 추출 시간은 5 ~ 20 시간 또는 가장 좋게는 10 시간 동안 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하수오 추출물을 수득한 후, 거름종이 등을 이용하여 고형분을 제거하고, 현탁액을 원심 분리시키고, 상층액을 감압 여과하여 사용할 수도 있다. 여과된 추출물을 진공회전농축기로 20 ~ 100℃ 또는 좋게는 50 ~ 70℃에서 감압 농축할 수도 있다.
- [0039] 본 발명의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하수오 추출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하는 화장료 조성물로 제조되는 화장품은 일반적인 유화 제형 및 가용화 제형의 형태로 제조할 수 있다. 유화 제형의 화장품으로는 영양화장수, 크림, 에센스 등이 있으며, 가용화 제형의 화장품으로는 유연화장수가 있다. 또한, 본 발명의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하수오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품 이외에도 피부과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매질 또는 기제를 함유함으로써 피부과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국소적용 또는 진신 적용할 수 있는 보조제 형태로 제조될 수도 있다.
- [0040] 적합한 화장품의 제형으로는 용액, 겔, 고체 또는 반죽 무수 생성물, 수상에 유상을 분산시켜 얻은 에멀전, 현탁액, 마이크로에멀전, 마이크로캡슐, 미세과립구 또는 이온형(리포솜), 비이온형의 소낭 분산제의 형태, 크림, 스킨, 로션, 파우더, 연고, 스프레이 또는 콘실 스틱(conceal stick)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다. 또한, 폼(foam)의 형태 또는 압축된 추진제를 더 함유한 에어로졸 조성물의 형태로도 제조될 수 있다.
- [0041] 그리고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은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하수오 추출물에 추가로 지방 물질, 유기 용매, 용해제, 농축제 및 겔화제, 연화제, 향산화제, 현탁화제, 안정화제, 발포제(foaming agent), 방향제, 계면활성제, 물, 이온형 또는 비이온형 유화제, 충전제, 금속이온 봉쇄제 및 킬레이트화제, 보존제, 비타민, 차단제, 습윤화제, 필수 오일, 염료, 안료, 친수성 또는 친유성 활성제, 지질 소낭 또는 화장품에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임의의 다른 성분과 같은 화장품학 또는 피부과학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보조제를 함유할 수 있다. 그리고, 상기의 성분들은 피부과학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양으로 도입될 수 있다.
- [0042]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을 첨가할 수 있는 제품으로는, 예를 들면, 수렴화장수, 유연화장수, 영양화장수, 각종 크림, 에센스, 팩, 파운데이션 등과 같은 화장품류와 클렌징, 세안제, 비누, 트리트먼트, 미용액 등이 있다.
- [0043] 본 발명의 화장료 조성물의 구체적인 제형으로는 스킨로션, 스킨 소프트너, 스킨토너, 아스트린젠트, 로션, 밀크로션, 모이스처 로션, 영양로션, 마사지크림, 영양크림, 모이스처 크림, 핸드크림, 에센스, 영양에센스, 팩, 비누, 샴푸, 클렌징폼, 클렌징로션, 클렌징크림, 바디로션, 바디클렌저, 유액, 프레스파우더, 루스파우더, 아이섀도 등의 제형을 포함한다.
- [0044] 다음의 실시예 및 실험예는 본 발명을 좀 더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지만, 본 발명의 범주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 [0045] (제조예1) 피부 미백용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하수오 추출물의 제조
- [0046] 채취한 대추 50g, 율피 50g, 하수오 50g을 100% 프로필렌글리콜 400ml에 침지시켜 50℃ 수욕조에서 10시간 동안 온탕하여 얻어진 추출액을 실온으로 냉각시키고 거름종이로 여과하여 여과액을 취하였다. 질소를 사용하여 여과액에서 에탄올을 증발시켜 농축한 다음, 이를 10% 에탄올에 녹여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하수오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 [0047] (제조예2) : 실시예 및 비교예
- [0048] 제조예1의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하수오 추출물을 함유하는 화장료를 제조하고, 이와 비교하기 위하여 대추 추출물, 율피 추출물, 하수오 추출물이 결여된 화장료 조성물을 하기 표의 조성비로 제조하였다.

표 1

No.	성분명	실시예(%)	비교예(%)
1	대추 추출물	4.0	-
2	율피 추출물	4.0	-
3	하수오 추출물	4.0	-
4	세테아릴 옥타노에이트	4.5	4.5
5	이소프로필 팔미테이트	4.5	4.5
6	폴리아크릴아마이드/ C13-14이소파라핀/라우레스-7	2.0	2.0
7	폴리소르베이트60	1.5	1.5
8	솔비탄 세스퀴올리에이트	1.0	1.0
9	향료	정량	정량
10	방부제	정량	정량
11	접제수	잔량	잔량
	합 계	100 %	100 %

[0049]

[0050]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은 상기 바람직한 실시 예들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록되었으나, 상기한 실시 예는 그 설명을 위한 것이며 그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님을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본 발명의 기술 분야의 통상의 전문가라면 본 발명의 기술 사상의 범위내에서 다양한 실시예가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